

'광주 교육 100년' 내일을 여는 역사를 만나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8월27일까지 '광주는 교육이다' 주제 기획전시

'여유당전서', '명륜당 현판', '노사선생문집', '광주사범학교 성적통지표'...

위의 열거한 어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키워드로 말하자면 '교육'이다.

교육 하면 우리는 학교와 학원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교육을 그것만으로 포괄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상이하다.

'논어' 위정편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태롭다'는 내용이 나온다. 배움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전제한다.

흔히 광주를 교육의 도시, 향학열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오랜 소외와 낙후된 지역 발전 등이 교육열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목적을 지나치게 사회적 위치 내지 신분 상승 등과 연계한다는 인상을 준다.

광주 교육의 역사와 가치, 정체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화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8월 2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광주는 교육이다'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다.

조광철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전시는 '교육도시 광주'의 이름에서 시작했다"며 "교육의 연원을 찾아 그 역사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광주 교육의 내일을 새롭게 열어보자는 취지가 담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 '교육은 백년지대계'는 교육의 일반적 의미와 전통사회 교육의 모습을 조명했다.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동몽수지'와 '격몽요결'. 전자는 조선시대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실천하는 법을 담은 책자이며 후자는 율곡 이이가 편찬한 아동 학습서서 말한다.



율곡선생전서

'교육은 백년지대계' '학교의 등장' '학생의 이름' '광주와 교육'

눈에 띄는 자료 가운데 하나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정약용은 광주향교 재건에 힘쓴 권수평의 치적을 칭송하며 "이로 인하여 유학의 풍교가 크게 진작되고 유학의 가르침이 더욱 밝아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광주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堂倫明 현판은 조철영(1777-1853) 목사 재임 중인 1841년 명륜당과 동서 재실이 화재로 소실된다. 이에 따라 1843년 향교를 중수하게 되었고 조인영(1782-1850)이 '명륜당 중수기'를 남겼다.

2부의 주제는 '학교의 등장'. 일제강점기 학교 명칭에는 '보통'이라는 글자가 곧잘 등장한다. 1906년 3월경 광주공립소학교는 광주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수업연한도 4년제로 늘린다. 이듬해에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교사를 시내로 옮긴다.

전시장에서는 서방공립보통학교 제4회 졸업생 명부를 비롯해 사립광주고등보통학교 사진첩서, 광주공립중학교 사진첩서, 광주공립농업학교 사진첩서, 전남도립사범학교 기숙사 터가 담긴 사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광주는 교육이다'전은 광주 교육의 역사와 가치, 정체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전시다.

도 만날 수 있다.

교육에는 여러 주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학생이다. 광주에는 광주학생들이 있었던데 근현대사의 굵은 줄기마다 광주학생들은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학생의 이름'이라는 주제의 제3부는 학생을 조명한다.

1929년 11월 3일과 12일의 광주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 학생운동으로 발전했다. 눈에 띄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들이라 명명된 자료는 1931년 6월 오재일을 비롯한 광주학생독립운동주역들이 형기를 마치고 대구형무소에서 석방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밖에 광주학생독립운동결문,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관련 자료 외에도 1954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건립사, 1956년 광주학생연극제, 1960년 광주학생들의 4·19의거 사진도 만날 수 있다.

'학교는 만일'이라는 코너에는 광주일보 전신 옛전날일보(1972년 2월 23일자)에 '중등학교 교

실난가중'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시내 초등학교 과밀화 수업 실태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아울러 사친회비 납입 고지서, 중학교 입학 무시험 추천기, 전기 고교 합격자 발표에 인파가 몰려 있는 사진과 자료 등도 비치돼 있다.

마지막 4부는 '광주와 교육'은 '광주 교육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키오스크를 통해 광주학생운동기념탑의 모형에 남겨볼 수 있는 코너다. 숨차게 달려온 우리 교육에 심포를 건네는 한편 도약의 동력을 실어주자는 의미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과거의 교실 풍경을 재현한 '동나물시루 학교'와 마주한다. 책상에 글을 그어 짝에게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커다란 나무 책상은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최경화 박물관장은 "광주역사에서 하나의 갈래로만 생각해 왔던 교육을 역사의 전면부로 가지고 왔다"며 "전통 교육에서부터 근현대 교육까지의 중간마디를 이어보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70년대 중학교 입학 무시험 추천기

"문화사랑방 '하나은행 라운지 1968' 서 만나요"

김용택 강연·금융사기 예방교육 북카페·음악감상실 시민들 발걸음

지난 2020년 '전일빌딩 245' 1층에 들어선 하나은행 '라운지 1968'이 시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68은 광주의 상징적인 건물이자 하나은행 광주지점이 입주한 전일빌딩이 완공된 해로, 5·18 당시 헬기사격탄흔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4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전일빌딩 245'라는 새 이름으로 돌아온 뜻깊은 공간이다.

지난 27일 개최된 '섬진강 시인' 김용택 초청 문화행사에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 쓰다'라는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혼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좋지만 이렇게 모여 좋은 강연을 듣고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이 있으니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기분"이라면서 "이런 훌륭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준 하나은행과 저명인사 특강을 기획한 독자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 시인의 특강에 이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받는 등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하나은행 광주지점의 '라운지 1968'은 하나금융그룹이 컬처뱅크를 모토로 개설한 7호점으로,



지난 27일 '전일빌딩 245' 1층에 자리한 '하나은행 라운지 1968'에서 김용택(오른쪽)시인과 문화애호가들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은행 지점을 활용해 지역 사회를 위한 개방형 문화 거점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특히 시니어 아티스트와 뉴트로를 지향한 복합문화공간 답게 북카페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감상실에서 LP를 들을 수도 있다.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도 인기다. 코너나 19로 한동안 이용제한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가

해제된 이후부터 예약을 통해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양동원 부행장은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문화공간으로 '라운지 1968'을 꾸몄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聖오월' 검은방



'인산'

이준석 오월 시·판화전, 6월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그의 작품을 보면 시가 떠오른다. 강렬하면서도 무참하다. 흥미로운 것은 시를 환기하는 작품은 다시 시를 잉태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준석 작가는 황지우 시인의 시 '聖오월'을 모티브로 판화작업을 했다고 했다. 해골 위에 놓인 붉은 꽃은 섬뜩하면서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하늘로부터 꽃을 향해 빛이 내려오지만 우울한 아우라를 거둘 수는 없다.

이준석 작가가 오월 시·판화전을 연다.

오는 6월 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B1 전시실에서 '검은방'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모두 30여 점이 출품됐다. 판화 25을 비롯해 회화 등 모두 30여 점은 작가의 5월에 대한 관점, 작업에 대한 심미안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다.

이밖에 전시장에는 김남주 시인의 '학살2'를 소재로 작업한 '인산', 박선욱 시인의 '누이야'를 모티브로 한 '누이야', 최하림 시인의 '죽은자들이여 너희는 어디 있는가'에서 작품을 뽑아낸 '귀' 등도 만날 수 있다.

그동안 작가는 80년대, 90년대 시를 연계한 전시를 많이 했다. 80년대는 시의 시대라 일컬을 만큼 현장성을 강조하는 시가 많이 창작됐다. 오월 시 동인들과 함께 책을 묶어낸 만큼 그는 5월에 대한 책임의식과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듯했다.

입구에서 만나는, 앞서 언급한 황지우 시인의 시를 모티브로 한 작품 '聖오월'은 이번 전시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검은방'이라는 전체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오늘의 시점에서 왜 오월이 현재형인지를 반문한다.

"망월가는 이맘때쯤이면/ 아카시아 꽃봉지 들고 다가오는 산 전체에서/ 막 양치질한 딸아이/ 입내 같은 것이 낫지/ 꼭 죽음이 아니어도/ 이렇듯 신성이 잘나에 임하는./ /오새로 嘯(분사)되는 현실 사유/ 낮뜨거워라..."

황지우의 시는 해마다 돌아오는 오월이 의례적이며 정치인들의 명분을 위한 '제'로 전락한 것을 통탄한다. 그러므로 '聖오월'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이준석 작가는 판화 작업을 하면서 두 가지 방식에 몰입했다. 하나는 시에 맞춰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를 읽고 난 느낌을 옮긴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작품이 주는 울림과 '검은방'의 상징성은 무겁고 깊다.

이 작가는 "시와 판화는 80, 90년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지평을 바꿀 만큼 강력한 문화예술 매체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 중심에 광주 5·18 민중항쟁이 있었다"며 "그 시절 목숨만큼 소중한 게 간직하고 지킴이 사했던 가치들이 지금 그리고 이 시대에 아직 유효한 것인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보고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는 심정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출신 이 작가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했으며 광주미술상(1999)을 수상했다. 광주미술인공동체회장과 제1·2회 통일미술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오월시·판화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안 피아노 연주회' 12일 자은면 다목적회관

가정의 달 '천사의 섬'이 '피아노의 섬'으로. '신안 피아노 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4시 자은면 다목적회관에서 열린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개최하는 이번 연주회는 자은면 다목적회관 준공을 기념하고 오는 10월 피아노 축제 기간에 '피아노 섬'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피아노 반주는 최고급 스타인웨이와 버금가는 아마하 그랜드 피아노 C&X로 연주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폴란드의 국립 소향 음악 대학

을 수석 졸업한 피아니스트 아그니에슈카 프제미크 브리와의 피아노 연주를 비롯해 바이올린의 다카시 하마노, 국내 정상급 테너 최승원과 소프라노의 김아람, 피아노 연주 김자영이 함께 수준 높은 클래식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자은면 면소재지에 있는 다목적회관의 연주홀은 230석 규모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피아노의



테너 최승원



소프라노 김아람

섬'에서 열리는 피아노 연주회는 섬 문화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